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

Consumer's Safety Consciousness and Safety Seeking Behavior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강사 김성숙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이기춘

Inha University
Lecturer : Sung Sook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 Kee Choon Rhee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고찰 | V. 결 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the safety problems for consumers with the viewpoint of behaviorism. Specially three issues are addressed: 1) Variables influencing the consumer's safety consciousness 2) The comparison of consumer's safety seek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product type 3) The relation of variables influencing the consumer's safety-seeking behaviors. In this paper, I deal with mainly the gas products and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n observe the consumers' reaction for those two products concerning to the consumer's safety problem. For this purpose, I distributed the questionnaire to the residents in Seoul and suburban area of age between 20 and 60 years old.

As a result, consumers put high values and concerns on general safety, but have quite negative concepts on society's safety problems generally. It was found that the consciousness on this problem was higher among those people who were reading journals for consumers, who have high education or high incomes, or who were unemployed house wives. In gas products, the level of consumer's safety seeking behavior and subareas were higher than in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matter of the variables which affect the consumer's safety seeking behavior directly, those were safety consciousness variables and experience of reading journal for consumer in gas products, and safety consciousness variables, consumer education experience, experience of injury, being employed and being married in agricultural products. Also as the result of path analysis, experience of reading journal for consumer, being employed, education and income level influenced indirectly the consumer safety seeking behavior.

I. 문제제기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구입하여 사용할 때 사용자 또는 그 주변에 있던 소비자들이 사고로 인한 상해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피해가 신체적 상해 혹은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업이 생산한 상품속성 가운데 안전성은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생활안전에 대한 욕구는 마땅히 충족되어야 할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안전욕구는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주요한 소비자관련기사(『매일경제신문』 1993. 11. 9) 가운데 소비자안전문제와 관련된 사건을 종합해 보면 1989년에는 식품포장 랩검사 발표공방, 라면의 공업용 우지파동, 수입자동의 위해농약 '알리' 검출, 1991년에는 폐돌 낙동강 수질오염 사건, 1992년에는 징코민 베타올잔류, 1993년에는 수입밀의 농약잔류 등이 있다. 최근에는 수입쇠고기와 수입아이스크림의 석중독균 검출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동아일보』 1997. 11. 15).

소득수준의 향상, 위생수준의 향상 그리고 기술의 엄청난 발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협요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¹⁾. 그러나 아직까지 소비자안전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초기적인 단계에 있으며 기존의 연구들 조차 소비자안전문제를 거시적이고 규제적인 시각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²⁾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에서 안전과 관련되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소비자행동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깊지 않을 뿐만아니라 소비자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위기의식이 최근에 더욱 커졌기 때문에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행동에 대한 연구가 희박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기 소비자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정보자와 소비자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가 매우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비자안전문제를

행동과학적 관점 즉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고자 소비자들의 안전의식은 어떠하며 일상생활에서 어느정도 안전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면서 소비생활을 하는지(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를 고찰하고자 한다³⁾.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을 함양하기 위한 소비자교육 및 정책적인 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고찰

1. 소비자 안전의식

1) 소비자 안전의식의 개념

소비자의식은 소비자행동의 기초가 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인 영역이다⁴⁾. 소비자의식은 소비자문제나 소비자역할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사상·감정·이론·견해라고 할 수 있다.

- 1) 특히 1991년 상수대교 붕괴이후 삼풍사건이나 아현동스邋발사건 등 대형 안전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사회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가고 있다.
- 2) 소비자안전에 관한 연구는 안전규제에 관한 연구(김석진, 1989), 제조물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법의 고찰 정도의 법률적인 측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OECD, 1983a, 1983b)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3) 소비자안전에 대한 행동과학적 관점의 연구는 소비자안전의 향상을 위해 구조나 제도를 수정해야한다는 구조주의적이며 행정주의적인 관점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효과면에서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소비자와 관련된 많은 정책입안에서 소비자행동에 대한 사전지식의 결여로 어떠한 기준이 없이 법률 및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소비자측면의 연구없이 결정된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정책들은 그 실효성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 4) 의식(consciousness)은 심적 생활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특성 혹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사상·감정·이론·견해 등을 일컬는 말을 의미한다(동아출판사, 새국어사전, 1992).

소비자안전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안전의식과 유사한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관심과 안전성 고려정도를 들 수 있으며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관련해서 많이 다루어진 개념은 크게 일반적인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한국소비자보호원, 1993; Feldman 1991)과 특정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구별된다(공업진흥청, 1989; 윤혜원, 1989; 최병선 1989; 한국소비자보호원 1993). 둘째, 소비자 안전의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태도가 연구되었다. 안전에 관한 태도란 소비자안전에 대해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호의적·비호의적인 감정이다(이지은·이기준 1993).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태도 역시 일반적인 안전문제에 대한 태도(공업진흥청, 1989; 윤혜원, 1989; 이지은·이기준, 1993; 한국소비자보호원, 1993; Slovic 등 1980)와 특정상품의 안전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Brown 등, 1987; Darden, 1994; Chipman 등, 1995; Grobe & Douthit, 1995; Wessells & Anderson, 1995).

2) 소비자 안전의식의 관련요인

소비자 안전의식의 관련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가장 많이 연구되어왔다. 이 가운데 연령, 학력, 소득, 취업상태, 결혼여부와 안전의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선행연구에 따라 연령, 학력, 소득 등의 변수들 각각이 소비자의 안전의식에 대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한국 소비자보호원 1989, 1993; 이지은·이기준, 1993; Wessells and Anderson, 1995; Grobe amd Douthitt, 1995; 최병선, 1989)가 있다.

소비자경험은 소비자들의 가치, 신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양한 소비자경험 역시 소비자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소비자경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구매경험, 소비자교육을 반야본 경험, 불량상품전시회의 참여경험, 불만호소경험, 소비자단체의 가입여부 등을 선정하여 지표로써 소비자경험도 혹은 사회참여도(김영신, 1991), 소비자정보지를 구독한 경험(예종석·김진병 1990), 위해 경험(이지은·이기준, 1993; 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등이 있다.

2. 소비자 안전추구행동

1) 소비자 안전추구행동의 개념

소비자들의 안전관련행동(safety related action)은 안전추구행동, 안전대처행동, 안전전략 등의 개념구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 안전추구행동, 안전대처행동, 안전전략은 비슷한 맥락으로 혼돈되어 사용되며 명확히 구분하기는 힘들다⁵⁾. 안전추구행동은 보다 행동의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추구(seeking)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안전추구행동은 안전을 의식적으로 반영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해사고나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한 사전적인 측면에서의 안전관련행동이다.

지금까지의 소비자행동 연구들은 마케팅 관점에서 소비과정을 구매까지만 치중하였고 구매후의 과정을 상대적으로 작게 다루고 있어 소비자행동은 문제인식과 정보탐색의 구매전 행동, 대안평가와 선택의 구매행동, 만족-불만족, 불평행동의 구매후 행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관점보다는 구매와 구매후 불만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판매자의 관점에서 모델설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관점에서는 상품의 사용을 통해 직접적인 효용이 나오므로 소비자가 어떻게 상품을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후기산업사회의 소비자

5) 안전대처행동(safety response)은 안전사고(안전에 대한 불만)에 직면하여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는가에 대한 사후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보다 방어적이고 문제 해결적이다. 안전대처행동은 안전에 관련된 불만족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일련의 대응방안의 모색으로 볼 수 있다. 안전전략(safety strategy)은 안전확보를 위한 경합적인 전략을 내포한다. 안전전략은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방법들과 그 조합이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합적인 어떠한 방법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치판단은 배제되며 단지 방법들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중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안전전략은 안전관련행동의 방법론상의 문제이다(Viscusi, 1984; Wildavsky, 1988)

는 앞으로 물질의 소유보다는 사용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둘 것이므로 소비자의 상품사용에 더욱 이론적인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柏木重秋, 1991). 더욱이 상품안전문제는 소비자가 단지 상품 선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상품사용시의 주의행동이 더욱 요구되는 소비자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소비자행동 모델을 기초로 하고 사용단계를 중요시하고자 하는 소비자관점을 통하여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안전을 미리 확보하려는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⁶⁾.

2) 소비자 안전추구행동의 관련요인

안전에 대한 태도와 안전추구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의 결과는 안전에 대한 태도와 안전추구행동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강수현 1981; 이지은·이기준 1993)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Kuel & Simon 1972; Staelin & Weinstein 1974; Brown & Crown & Marshall 1987; Kramer & Penner 1987)로 나뉜다. 대부분 소비자의 안전관련 행동은 안전기술이 강화된 상품구입 정도만을 다루고 있어서 연구 대상상품이나 조사시기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소비자 경험변수로 소비자교육을 받아본 경험, 소비자전문지의 구독경험, 위해 경험 유무 등이 소비자행동 및 문제인식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계선자(1987)의 연구에서는 소비자교육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더 적극적인 소비자문제 해결 방법을 택하였다. 그외 사회참여경험이 많은 소비자가 소비자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은 정보추구자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ICIS(International Consumer Information Survey)연구에서는 상품테스트지구독자는 비구독자에 비해서 구매행동에서 중립적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전반적인 구매과정에서 회의적이며 소비자문제에 진보적인 경향이 있었다(Thorelli & Sentell 1982). 소비자교육경험, 불량상품전시회 참여경험, 소비자고발행동경험으로 소비자경험을 조작적 정의한 이지은·이기준(1993)

의 연구에서는 소비자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안전추구행동수준이 높았다.

위해경험과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몇몇 연구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89)의 연구에 의하면 표시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소비자들이 표시내용을 읽어 본 소비자보다 식품, 주방용품, 의약품 화장품으로 인한 위해발생률이 높아 표시사항 유의도와 위해발생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지은·이기준(1993)의 연구에서도 위해경험과 안전추구행동이 낮은 부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조사가 아직까지 미흡하였던 점과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과 생각을 파악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여 특수한 영역보다는 일반적인 영역에 대한 안전의식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소비자 안전추구행동은 구매전 단계-구매단계-사용단계를 거치는 일련의 소비과정에 따라 하위영역을 정보탐색단계-상품선택단계-상품사용단계에서의 안전추구행동으로 설정하였다. 소비자안전의식변수로 안전지향성과 안전문제인식도를 선정하였다. 소비자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의 관련변수를 알아보기위해 소비자배경변수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소비자경험 관련변수들 등을 선정하였다.

1.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연구문제 1. 소비자 안전의식 수준은 어떠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사회인구학적 변수, 소비자경험 관련변수)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소비자 안전추구행동의 수준은 어떠

6) 최근의 환경과 관련된 소비자행동의 연구들은 구매전단계-구매단계-사용단계-사용후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개념설정을 하는 예를 볼 수 있다(박윤아, 1997).

한가.

- 연구문제 3. 소비자 안전의식은 안전추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적 관계는 어떠한가.

이상을 종합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변수의 정의

1) 소비자 안전추구행동

본 연구는 소비자개인의 차원에서 위해사건을 예방하기위하여 안전을 확보하려는 행동을 주제로 하므로 안전추구행동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소비자 안전추구행동이란 소비자가 구매 전부터 구매후 사용에 이르는 전 소비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정보탐색단계의 안전추구행동과 상품선택단계의 안전추구행동, 그리고 상품사용단계의 안전추구행동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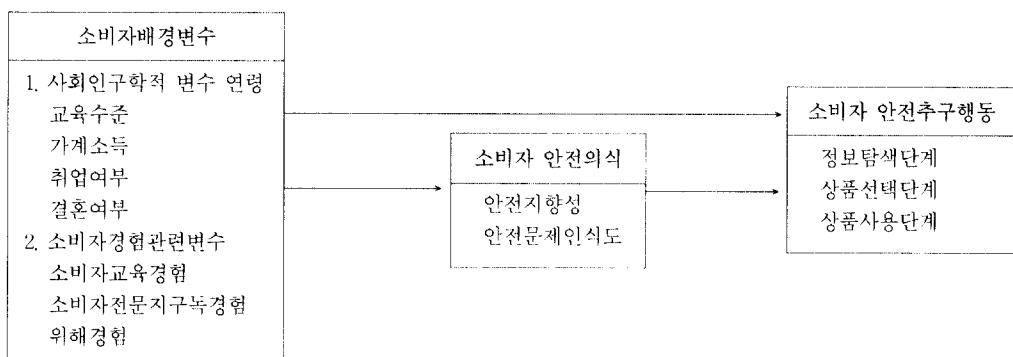
- ① 정보탐색단계의 안전추구행동 :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의 수용할만한 수준과 실제적 상태의 수준 사이의 괴리를 지각하고 그 괴리를 해소하려는 활동이다. 구체적으로 상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 ② 상품선택단계의 안전추구행동 : 소비자가 특정한 상품의 선택상황에서 안전성을 다른 속성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도로 정의하며 구체적으로 상품선택시 가격과 성능보다 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③ 상품사용단계의 안전추구행동 : 상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위험한 상품이나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위험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하는가로 정의되며 구체적으로는 사용상 주의행동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2) 소비자 안전의식

일반적인 안전에 대하여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지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가치지향과 사회적인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을 포함하였다.

- ① 안전지향성 :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안전에 대하여 관심과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지향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정도와 바라는 안전수준, 안전을 높이는 것에 대한 지불용의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 ② 안전문제인식도 : 소비자들이 사회의 안전체계에 대하여 인식하는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의 안전체계란 사회전체의 안전수준, 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생산자의 역할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림 1> 연구모형

3) 소비자경험관련변수

- ① 소비자교육경험 : 소비자가 소비자교육이나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을 의미한다.
- ②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 : 소비자가 소비자단체에서 발행된 소비자전문지, 예를들면 「소비자시대」나 월간 「소비자」와 같은 잡지를 구독한 경험을 의미한다.
- ③ 위해 경험 : 소비자가 과거에 특정상품과 그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한 사고를 당한 경험을 의미한다.

3. 측정도구

1) 소비자 안전추구행동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은 정보탐색단계의 안전추구행동, 상품선택단계의 안전추구행동, 상품사용단계의 안전추구행동으로 구성되는데 소비자 안전추구행동 척도는 두 상품유형 각각에 세변수를 측정한 후 세변수의 합으로 만들었다. 척도는 한국 소비자보호원(1989, 1993), 최병선(1989), 예종석·김진병(1990), 이지은·이기준(1992), 김진희(1995), 싱타클라라카운티(1993)를 참조하였다. 소비자의 상품 안전성에 관한 정보탐색정도는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1점에서 「매우 많이 알아보았다」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선정된 상품유형 각각에서 상품구매 시 실제로 가격보다 안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여 선택하였는지와 성능(맛)보다 안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여 선택하였는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각각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는 5점척도를 이용하였다. 상품사용단계의 안전추구행동의 척도는 총 4문항이 본조사에서 조사되었으며 응답은 「항상그렇게 한다」 「대체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로 3점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였다.

2) 소비자 안전의식

소비자의 안전의식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1989, 1993), 이지은·이기준(1992), 공업

진홍청(1989), 윤혜연(1989), Slovic·Fishhoff·Lichtenstein(1980), Darden(1994) 등을 참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안전지향성척도는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관심정도, 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불용의, 바라는 안전수준, 안전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로 5분항으로 구성하였다. 「매우 그렇지않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로 5점으로 측정하였다.

안전문제인식도는 구체적으로 (1) 사회의 안전수준과 매스컴의 역할에 대한 평가 (2) 사업자의 역할 영역에서는 사업자(제조자 및 판매자)의 안전관리의 효과, 사업자의 안전관리노력에 대한 평가, 소비자 피해의 책임소재 (3) 정부 영역에서는 정부의 안전규제에 대한 평가, 안전기준의 실효성 등 5분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⁷⁾.

3) 소비자경험 관변수

소비자교육경험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혹은 사회단체를 통하여 소비자교육내용이나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여부를,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은 한번이상 「소비자시대」나 「소비자」와 같은 객관적인 소비자전문지를 구독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그리고 위해경험은 응답자들이 해당되는 상품을 사용하다가 신체·건강상의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위의 경우 모두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1점,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점을 부여하였다.

4) 사회인구학적 변수

연령은 실제의 연령을 측정하였고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부터 대학원이상까지 5단계로 측정하였다. 가계소득은 월평균가계소득을 150원 미만 부터 350만원

7) 소비자의 안전문제인식도는 높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니 안전문제인식도가 높다는 것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사회의 안전문제를 인식함을 의미한다. 보다 비판적인 소비자는 안전문제해결을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할 것이므로 안전문제인식도가 높은 소비자는 안전의식수준이 높다라고 할 수 있다.

이상까지 6단계로 측정하였으며 취업여부와 결혼여부는 취업했는지 유무와 결혼유무를 측정하였다.

4. 연구방법 및 절차

1) 상품의 선정

일반 소비자가 안전문제에 직면하는 경우는 특정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과정일 것이므로 소비자 안전과 관련이 되는 특정 상품군을 선정하여 각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을 살펴보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고발사례집, 위해정보보고서와 위해상품에 관한 조사연구등을 토대로 하여 자동차, 우유, 햄, 라면, 화장품,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압력밥솥, 생수, 램(호일), 보일러, 완구 등을 선정하였는데 기초조사를 토대로 우유·유제품·햄 등 가공식품, 전기(압력)밥솥·믹서기·쥬스기·녹즙기 등 주방용품, 화장품, 가스기구, 랙스·세제(주방·세탁)·살충제, 농산물을 주요상품군으로 선정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간단한 안전문제에 관한 문항을 조사하여 상품군 선정에 참조하여 10개의 상품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요한 상품군으로 식품에서 농산물(채소와 과일)과 가공식품, 가스기구와 전자제품, 가정용 화학제품(각종 세제와 살충제 등), 화장품이 선정되었다. 본조사는 소비자안전의식과 위의 5가지 상품군에 대한 안전추구행동에 대한 질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인 분석에서는 가스기구와 농산물을 분석대상으로 결정하였다.

가스기구와 농산물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두 상품이 소비자의 안전성을 중요시 여기는 상품특성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대비가 되기 때문이다. 가스기구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안전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었으며 구매전에 그 상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어느정도 정보를 알 수 있는 탐색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선매품을 대표하는 내구재이다. 농산물은 가스기구에 비해 소비자들이 안전성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구매전에 그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험재적인 성격이 강하며 자주 구입하는 편의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내

구재이다.

2) 자료수집 및 절차

기초조사는 1996년 5월 16일 40부를 배포하여 안전문제에 관한 문항을 조사하여 상품들을 선정하고 주된 소비자안전문제를 추출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주로 위해경험과 안전의식, 안전문제에 관한 문항을 토대로 주된 상품군의 선정과 안전의식 척도를 구상하였다. 예비조사는 1996년 5월 23-24일에 100부를 조사하여 질문지의 문항과 척도의 신뢰도와 빈도분포를 분석하였고 문항의 삭제·수정·축약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질문지를 이용하여 서울시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이상 60세 미만의 여성 766명을 조사하였으며⁸⁾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정, 중회귀분석,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경로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의 문항들은 박사논문지도위원회의 지도위원 4분과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소비자학분야를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의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신뢰도는 크론바하(cronbach)의 알파계수에 의하여 각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검토하였다. 각 척도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74에서 .59사이의 값을 나타내었다. 특히 농산물에서의 안전추구행동의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59로 낮았으나 문항수가 4개로 적은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8) 표집을 위하여 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공지시가에 대한 연차보고서(1995. 9)'와 아파트시세를 나타내는 잡지 '부동산뱅크(1996. 1)'를 이용하여 다단계층화표집을 하였다. 본조사는 1996년 6월 20일부터 7월 30일간 가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조사자 80명이 해당 조사 지역의 가정을 방문하여 질문조사를 하였다.

〈표 1〉 조사내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빈도(%)	변수	집단	빈도(%)
연령	20대	199(26.0)	혼인상태	미혼	146(19.3)
	30대	255(33.3)		기혼	611(80.7)
	40대	225(29.4)		제	757(100.0)
	50대이상	87(11.4)			
	계	766(100.0)			
교육정도	중졸이하	30(4.9)	월평균가계소득	149만원이하	81(15.8)
	고졸	283(38.9)		150~199만원	111(17.3)
	전문대·대학중퇴	121(16.6)		200~249만원	110(17.2)
	대학	249(34.2)		250~299만원	83(12.9)
	대학원이상	39(5.4)		300~349만원	75(11.0)
	계	722(100.0)		350만원이상	161(21.0)
자녀유무	없음	192(25.8)	직업	취업	312(43.7)
	있음	553(74.2)		전문·관리·기술직	110(15.4)
	계	745(100.0)		사무직	106(14.8)
소비자의 안전의식				자영업주	37(5.2)
				생산·판매·서비스직	56(8.0)
				기타	3(0.3)
				비취업	402(56.3)
				계	714(100.0)

IV. 연구결과

1. 소비자의 안전의식

우리나라 도시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관심이나 가치를 높게 부여하고 사회의 안전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들을 분석한 결과 안전에 대한 막연한 관심수준은 높은 반면 안전강화를 위한 자발용의 등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안전관리, 사회전반의 안전문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다.

〈표 2〉를 보면 소비자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먼저 안전지향성을 교육수준, 가계소득, 취업여부, 그리고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이었다. 즉 소비자전문지를 구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그렇지 못한 소비자에 비해 생활전반에서 안전에 더 높은 가치와 관심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취업하지 않은 여성이 안전에 대한 강한 관심과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반면 안전문제인식도에서는 가계소득만이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안전문제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2.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 수준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수준은 상품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가스기구 경우 농산물의 경우보다 안전추구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안전추구행동 각 하위영역인 정보탐색단계, 상품선택단계, 상품사용단계에서의 안전추구행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농산물보다 가스기구의 안전성을 더 치명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가스기구의 경우 농산물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싸고 선매품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표 2〉 소비자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⁹⁾

독립변수	종속변수		안전문제인식도	
	b	beta	b	beta
연령	-.012	-.039	-.007	-.031
교육수준	.134	.104**	.051	.053
가계소득	.004	.118**	.003	.110**
취업여부	-.600	-.099**	-.202	-.044
결혼여부	.694	.060	-.046	-.005
소비자교육경험	.247	.033	.228	.041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	1.090	.173***	-.288	-.061
위해경험-가스기구	.531	.066	.394	.065
위해경험-농산물	.110	.011	.110	.015
상수	16,571		14,544	
R ²	.087		.026	
수정된 R ²	.072		.011	
F값	5,905***		1,692*	

* p<.05 ** p<.01 *** p<.001

확보하려는 소비자행동에서도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예상된다.

3. 소비자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

소비자 안전의식 가운데 안전지향성이 안전추구행동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소에 안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높은 가치부여를 하는 성향이 있는 소비자가 실제 안전추구행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비자배경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앞에서 설정하였던 연구모형이 유의하였다. 즉 소비자 안전의식을 매개변수로 하는 인과모형이 통계적으로 타당하였는데 가스기구나 농산물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소비자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안전지향성, 소비자교육경험,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 위해경험, 교육수준, 취업여부, 결혼여부가 유의하였다. 안전지향성을 제외하고는 상품유형에 따라 소비자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랐으며 설명력에서도 차이가 났다. 결론적으로 탐색재인 가스

〈표 3〉 상품유형에 따른 안전추구행동 수준 차이

상품유형	안전추구행동	
	가스기구	농산물
가스기구	12.07	
농산물		9.90
t 값		26.94***

*** p<.001

기구의 경우 소비자정보와 관련된 교육수준이나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이 유의한 반면 경제재인 농산물의 경우 개인적인 소비경험과 관련되는 소비자교육경험, 위해경험, 취업여부, 결혼여부 등이 유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가스기구에서의 소비자 안전추구행동

가스기구에서 안전추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9)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은 각각 5단계와 6단계의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는데 회귀분석에서는 교육수준은 교육년수로, 가계소득은 각 단계의 중간값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연속변수화하였음 (이하 〈표 4〉, 〈표 5〉, 〈표 6〉에서 모든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에서 위와 같은 방식을 취했음).

가지는 변수는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과 안전지향성이었다. 안전지향성은 안전추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만을 가지는 반면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은 안전추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과 안전지향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전문지를 구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그렇지 못한 소비자에 비해 가스기구의 소비과정에서 안전추구행동을 더 많이 하였으며 안전지향성이 높을수록 안전추구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소비자배경변수 가운데 교육수준, 가계소득, 취업여부는 가스기구의 안전추구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표 4〉 참조). 그러나 경로분석결과 위의 변수들은 실제로는 안전지향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안전추구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거나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실제 소비과정에서도 안전을 특별히 고려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은 그들의 교육이나 소득 등 자원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안전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그림 3〉 참조).

가스기구의 경우 변수들의 직접·간접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인과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안전지향

성>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교육수준>가계소득>취업여부 순이었다. 이 가운데 안전지향성과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만이 상당히 높은 인과적 효과를 가지며 다른 변수의 인과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가스기구에서 소비자들의 안전의식과 소비자전문지 등을 통한 소비자정보가 실제 안전추구행동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짐을 시사한다(〈표 5〉 참조).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정보가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한 연구(Miller, 1975)와 일치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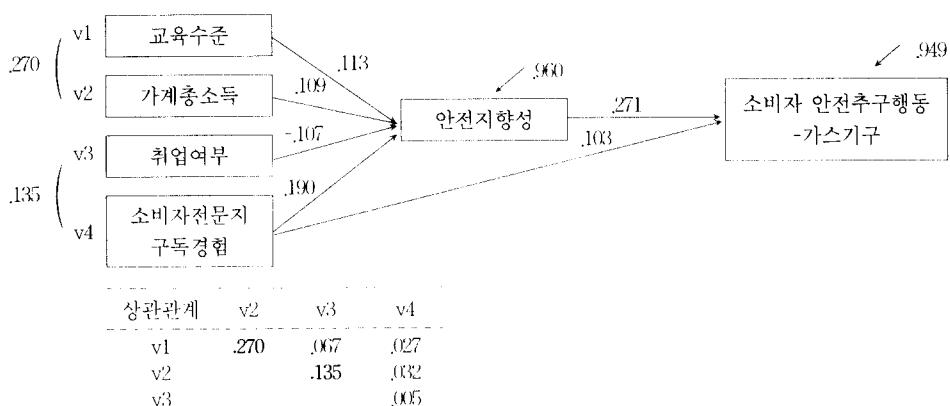
2) 농산물에서의 소비자 안전추구행동

농산물에서 안전추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표 4〉 가스기구에서 인과모형의 회귀분석결과 요약

종속변수 독립변수	안전지향성 β	안전추구행동 β
교육수준	.113**	
가계소득	.109**	
취업여부	-.107**	
소비자전문지경험	.190***	.103**
안전지향성		.271***
R ²	.078	.100
수정된 R ²	.071	.092

** p<.01 *** p<.001



〈그림 2〉 가스기구에서 소비자 안전추구행동 관리변수의 인과모형 경로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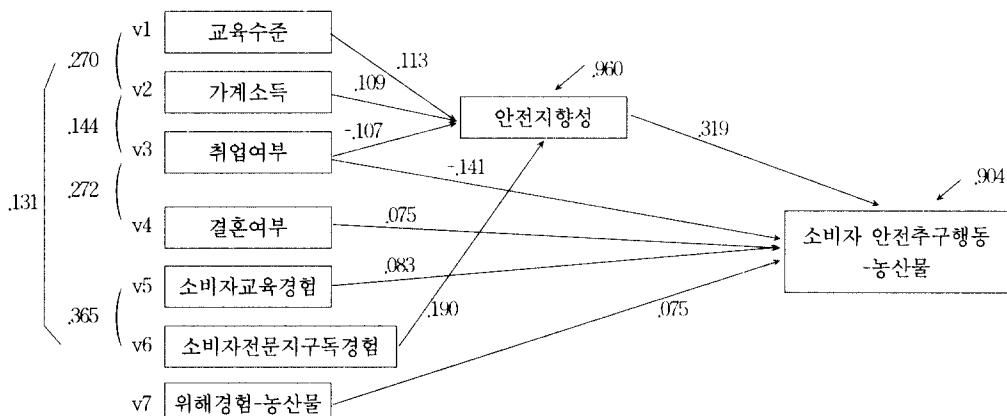
가지는 변수들은 취업여부, 결혼여부, 소비자교육경험, 위해경험, 안전지향성이었다. 이 가운데 취업여부는 안전추구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과 안전지향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즉 취업하지 않은 소비자가, 기혼인 소비자가, 소비자교육경험과 농산물로 인한 위해경험이 있었던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그리고 안전지향성이 높을수록 안전추구행동을 많이 하였다.

농산물에서 독립변수들의 총인과효과를 비교해보면 안전지향성>취업여부>위해경험>소비자교육경험>결혼여부>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교육수준>가계소득순이었다. 농산물에서는 안전지향성이외에 취업여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으며 위해경험이나 소비자교육경험 등 소비자경험관련변수의 영향력이 두드러진다(〈표 6〉 참조).

농산물에서의 결과를 가스기구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안전지향성은 두 경우 모두 유의한 변수였다.

〈표 5〉 가스기구에서 소비자 안전추구행동의 인과효과 분해

변 수	인과효과			비인과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안전지향성)	총인과효과			
교육수준		.031	.031	-.031	.000	
가계소득		.030	.030	-.011	.019	
취업여부		-.029	-.029	.013	-.042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	.103	.051	.154	.002	.156	$F = 12.455$
안전지향성	.271		.271	.025	.296	$p < .001$
						$R^2 = .100$



상관관계	v2	v3	v4	v5	v6	v7
v1	.270	.067	.028	.032	.131	.010
v2		.144	-.080	.043	.038	.006
v3			.272	-.075	-.003	.006
v4				.083	.044	.007
v5					.365	.043
v6						.091

〈그림 3〉 농산물에서 소비자 안전추구행동 관련변수의 인과모형 경로분석결과

<표 6> 농산물에서 소비자 안전추구행동의 인과모형 총효과 분해

변수	인과모형 효과		총인과효과	비인과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안전지향성)				
교육수준		.036	.036	.034	.070	
가계소득		.035	.035	.029	.064	
취업여부	-.141	-.033	-.174	-.012	-.186	F=17.939
결혼여부	.075		.075	.007	.142	p<.001
소비자교육경험	.082		.082	.007	.149	R ² =.184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		.060	.060	.002	.122	
위해경험-농산물	.097		.097	.033	.130	
안전지향성	.319		.321	.044	.365	

즉 안전의식은 상품특성과 상관없이 안전추구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가스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변수가운데 소비자교육경험과 위해경험이 농산물에서는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을 확보하려는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 연구들(Staelin, 1978; Thompson, 1974)의 결과와 일치한다.

농산물의 경우 경제재적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농산물의 소비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취업여부는 두 경우 모두에서 유의하였으나 농산물에서 그 인과효과가 더 커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의 경우 시간제약으로 인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특히 농산물의 사용 등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IV. 결론 및 제언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행동측면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교육적 방안에 대하여 내려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행동변화에서는 소비자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안전지향성은 두 상품유형 모두에서 안전추구 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소비자배경변수(교육, 소득, 취업, 소비자전문지구독 등)의 매개역할을 통해 안전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안전의식에서도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가지도록 할 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상품구매 상황하에서도 안전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습관을 함양하도록 해야한다. 지금까지의 소비자교육에서는 소비자안전·위해내용은 단지 구매교육에서 다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시민의식 및 가치영역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때 소비자 안전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비자단체 등 종립적인 단체에서 제공하는 소비자전문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탐색재와 경제재에서 소비자 안전추구행동 수준이 차이가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특히 탐색재의 경우(예. 가스기구) 소비자정보와 관련되는 변수들-교육수준, 소비자전문지구독경험-의 영향력이 더 큰 반면 경제재의 경우(예. 농산물) 소비자교육경험이나 위해경험의 영향력이 더 커다. 따라서 소비자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탐색재는 소비자정보 제공의 방법으로 그리고 경제재에서는 소비자교육의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이론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셋째.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이 추출되었다. 특히 비혼 소비

자, 취업한 소비자, 소득수준이 낮은 소비자, 교육수준이 낮은 소비자는 안전의식도 낮았으며 가스기구와 농산물 두 경우 모두에서 안전추구행동수준이 낮았다.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이 왜 안전추구행동수준이 낮은지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소비과정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행동에 제약을 느끼는지를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경험 관련변수는 안전추구행동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전문지를 구독하거나 위해를 경험한 적이 있던 소비자가 위와 같은 경험이 없었던 소비자보다 안전의식 수준이 더 높고 안전추구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이는 소비자에게 각 상품의 위해내용, 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간에 위해 및 소비자안전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더 큰 효과를 얻기위해 이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강수현. 1981. "안전행위를 위한 심리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계선자. 1981. "도시주부가 인지한 소비자문제와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5권 1호: 85-100.
- 3) 공업진흥청(한국공업표준협회). 1989. 제조물책임에 관한 조사연구.
- 4) 김석철. 1989. "수입품 안전관리제도의 정착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김석철·박성용·황정선. 1989. 소비자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소비자보호원.
- 6) 김성숙·이기준. 1995. "한국 대중매체에 나타난 소비자 안전문제의 내용분석: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신문과 소비자전문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1).
- 7) 김진희. 1995. "의료서비스의 정보탐색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동아출판사편. 1992.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 8) 박윤아. 1997.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예종석·김진병. 1990. "우리나라의 정보탐색자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1권1호.
- 10) 이지은, 이기준. 1992. "서울시 주부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17.
- 11) 최병선. 1990.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 소비자안전문제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28(1): 179-210.
- 12) 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1993. 소비자위해실태 및 안전의식.
- 13) ______.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소비자위해정보 및 안전실태조사.
- 14) 매일경제신문.
- 15) 동아일보.
- 16) 桜木重秋. 1991. 消費者行動. 東京: 白桃書房.
- 17) Brown, S. A., E. M. Crown and S. P. Marshall. 1987. "Consumer Beliefs about a Attitude toward Intentions to Purchase Fire Resistant Products." Advanced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79-385.
- 18) Chipman, H., P. Kendall, G. Auld, M. Slater, and T. Keefe. 1995. "Consumer Reaction to a Risk/Benefit/Option Message about Agricultural Chemicals in the Food Supply."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9(10):144-163.
- 19) Crown, E. M. and S. A. Brown. 1984. "Consumer Trade-offs among Retardance and Other Products Attributes: a Conjoint Analysis of Consumer Preferenc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8(2): 305-316.
- 20) Darden W. R. and B. J. Babin, M. Griffin and R. Coulter. 1994. "Investigation of Products Liability Attitudes and Opinions: A Consumer Perspective."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8(1): 54-80.
- 21) Dardis, R. 1980. "Economic Analysis of Current Issues on Consumer Product Safety: Fabric

- Flammability."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4(1): 109-123.
- 22) _____. 1983. "Consumer Risk Response and Consumer Protection, an Economics Analysis of Seat Belt Usage."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7(2): 245-261.
- 23) Feick, L. F., R. O. Hermann, and R. H. Warland. 1986. "Search for Nutrition Information: A Profit Analysis of the Use of Different Information Sourc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 20, No. 2: 173-192.
- 24) Feldman, L. P. 1991. *Consumer Protection: Problems and Prospects*(2nd ed.). St. Paul, Mn: West.
- 25) Grobe d, and R. Douthitt. 1995. "Consumer Acceptance of Recombinant Bovine Growth Hormone:Interplay Between Belief and Perceived Risk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9(1):128-143.
- 26) Kramer, C. S. and K. P. Penner. 1987. "Food Safety Information and Regulation: Are these Substitutes or Compromises?" *Advanced on Consumer Interests*:373-378.
- 27) OECD. 1983a. *Consumer Policy during the Past Ten Years:Main Developments and Prospects*.
- 28) _____. 1983b. *Product Saety:Risk Management and Cost-Benefit Analysis*.
- 29) Oglethore J. E. and K. B. Monroe. 1994. "Determinants of Perceived and Safety Risks of Selected Hazardous Products and Activiti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8: 326-346.
- 30) Santa Clara County Hazardous Waste Management Program Office of Toxics and Solid Waste Management Department of Planning and Development. 1993. *The Take me Shopping-A Consumer Guide To Safer Alternatives To Hazardous Household Product*.
- 31) Slovic P. B. Fishhoff and S. Lichtenstein, 1980. "Facts and Fears: Understanding Perceived Risk," in R. Schwing and W. Albers, Jr ed. *Societal Risk Assessment:How Safe is Safe Enough?*. Plenum.
- 32) Staelin, R. and A. G. Weinstein, 1974. Correlates of Consumer Safety Behavior. *Advanced in Consumer Research 1*. Urbana Illinois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87-100.
- 33) Staelin, R. 1978."The Effects of Consumer Education on Consumer Safety Behavior,"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5: 30-40.
- 34) Teague J. L. and D. W. Anderson. 1995. "Consumer Preferences for Safe Handling Labels on Meat and Poultry."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9(1):108-127.
- 35) Thomson, J. L. 1974. "Product Safety: Suggestion for Better Use and Purchase Behavior Through Consumer Education." *Advanced in Consumer Research*, 1: 101-107.
- 36) Viscusi, W. K. 1984. *Regulating Consumer Product Safety*. Washington D. 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37) Wall, M. and J. Gallagher. 1983. "Consumer Attitudes toward Children's Flame-retardant Sleeper." *Canadian Home Economics Journal*, 33: 21-26.
- 38) Wessells, C. R. and J. G. Anderson. 1995 "Consumer Willingness to Pay for Seafood Safety Assuranc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9(1): 85107.
- 39) Wildavsky, Aaron. 1988. *Searching for Safety*.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